

역사의 그늘에서 걸어 나온 '여성'의 삶

미셸 페로 엮음 《여성의 역사 4: 페미니즘의 등장》을 읽고

박진숙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원

여성의 역사, 여성사란 과연 있는가? 수천 년 동안(아마도 더 오랜 옛날부터) 여성의 삶과 생활은 별로 변한 것이 없지 않은가? 혹자는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른다. 여성의 역사는 오랫동안 역사의 그늘 속에 방치되어 왔다. 그러나 여성운동과 더불어 배태된 학문으로서의 '여성학'이 대학의 교과과정에 도입되면서 기존의 모든 학문분야에 대한 '여성학적 시각' 내지 '여성주의적 시각'에 의한 검증이 시도되었다. 그러한 노력의 하나가 바로 여성의 역사를 복원하려는 일이었다. 여기에는 인류학의 발달과 역사학계에서 일어난 새로운 경향, 즉 아날학과와 사회사학자들의 연구성과에 힘입은 바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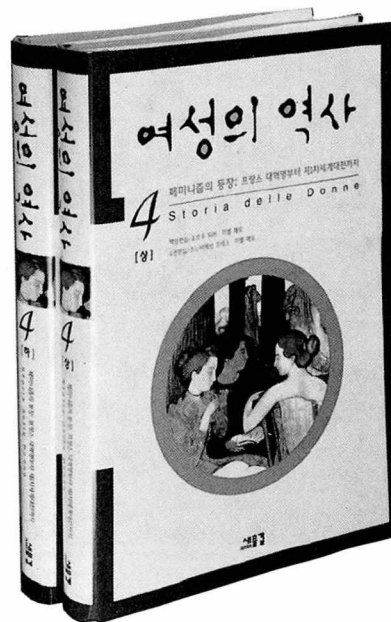
역사에서 배제됐던 여성에 주목

과거 전통적인 역사기술은 주로 민중이 아닌 지배층 남성(왕·정치종교 지도자·대상인·대부호 등)의 행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여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역사에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학의 새로운 경향은 과거 역사에서 배제되었던 민중과 (뒤늦게) 여성의 경험에 주목하게 되었으며, 그들에 관한 역사를 새롭게 기술하고 재해석·재평가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1970년대 이래 여성에 관한 연구, 여성의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어 《한국여성사》 등이 출판되었고 여성사를 어떻게 연구하고 쓸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인 시도가 많이 있었다.

과거 역사 속에 나타나는 여성들은 주로 여왕이라든가 기녀(妓女), 무녀(巫女) 등 일면여성과는 다른 '특출난' 여성들이었다. 이러한 기존가치를 뒤집어 역사 속에 매몰되어 보이지 않던 피지배층을 역사의 주체자로서 서술하는 방법이 모색되었다. 그 방법의 하나는 '히스토리(history)'가 아닌 '허스토리(herstory)'를 묘사하는 것으로, 여성을 기존의 틀 안에서 서술하고 그 집단의 가치관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위대한 사랑의 어머니, 국가나 민족에 기여한 여성들의 기록(신사임당·논개·열녀·효부)을 들 수 있다. 이를 좀더 확대하여 가족·노동 등의 분야에서 여성만을 뽑아서 서술하는 것도 이 범주에 속한다.

두번째 방법은 근래에 인기를 끌고 있는 사회경제사적·민중사적 접근방법이다. 예를

이 책은 의상과 패션에서부터 문학·예술·법률·종교·철학 등 인간사의 모든 부문에 걸쳐 '여성의 정체성과 타자성'을 추적·탐구하여 여성의 다양한 목소리를 그대로 살려내고자 한다. 책을 읽으며 우리는 전혀 새로운 눈으로 기존의 철학자·혁명가·예술가를 바라보는 경이로운 체험을 하게 된다.



들면, 납세대장을 보고 인구의 구성, 남녀성비, 출생률을 연구하거나, 다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라든가 성생활을 연구하는 것 등이다. 이는 기존의 왕조사, 정치사적 연구와는 결별하는 것으로 연구의 시각과 대상의 엄청난 전환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전자가 분리적인 데 반해, 후자는 지나치게 통합적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역사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여성이 흡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켈리-고달은 여성이 하나의 새로운 분석도구 내지 개념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이를 지양하여 새로운 분석틀로서 '젠더(gender)'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념의 여성사 연구는 여성학 강의와 여성연구와 더불어 197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비로소 역사의 그늘에 가려 보이지 않던 여성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새롭게 체험하게 되는 여성들의 모습

이러한 여성의 역사를 복원·재구성하는 괄목할 만한 연구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총5권으로 편집된 《여성의 역사》다. 전체 편집은 《사생활의 역사》로 우리에게 친숙한 프랑스 역사학자인 조르주 뒤비와 미셸 페로가 맡았고, 각 권마다 1~2명의 편집자가 따로 책임지고 있으며, 각 권마다 다른 편집체제와 집필양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여성사에 대한 어느 하나의 입장을 대변하기보

다는 다양한 여성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준다. 집필진은 다방면에 걸친 프랑스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60여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이탈리아에서 출간된 이래 14개국어로 번역되어 전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책은 《여성의 역사》 가운데 제4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프랑스 혁명부터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1914년까지 125년간을 다루고 있다(권기돈·정나원 옮김). 이 시기는 서구 역사에서도 중요한 시기지만, 여성의 역사에서도 일대 전환기를 이루는 때이기도 하다. 19세기라면, 여성들에게 암울하고 엄격하며 유폐적인 시대였다는 이미지가 떠오른다. 그러나 이 시기에 여성의 삶이 시민사회의 개인으로서 개명되게 되었으며, 페미니즘이 탄생하게 된다.

따라서 19세기는 종래 여성의 삶을 일변시켰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삶에 대한 전망도 변화시킨 시기였다. 현대에 가까워지면서 여성은 점차 완벽한 개인이자 시민으로서 정치 및 공공생활의 참여자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여성들의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엄격한 규범에 따른 여러 제한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의 범위가 확대되기 시작하여 이주 대담한 전망들이 새롭게 펼쳐지게 되었다.

프랑스 혁명은 여성에게도 진정 혁명이었던가? 자유·평등·박애의 가치를 내건 시민의 공화국에서 여성도 과연 시민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에서 시작하여, 당대의 철

학자들은 '여성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았을까? 예술과 문학은 왜 그토록 끈질기게 여성을 이미지 속으로 가두려고 했을까 등. 이처럼 이 책은 의상과 패션에서부터 문학·예술·법률·종교·철학 등 인간사의 모든 부문에 걸쳐 '여성의 정체성과 타자성'을 추적하고 탐구하고 여성의 다양한 목소리를 그대로 살려내고자 한다. 왜냐하면 과거 역사에서 여성은 스스로 말하거나 묘사되기보다는 타자(주로 남성들)에 의해 대변돼왔고, 이미지나 상징으로 표현돼왔기 때문이다.

여성이 어떻게 재현(표상 representation)되고 이미지화되었는가를 당시에 나온 다양한 그림과 자료, 문학작품 등을 활용해 다각도로 여성들의 삶을 복원해내고자 한다. 책을 읽어내려가면서 우리는 기존의 철학자·혁명가·예술가·문학가를 전혀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기존의 사고방식(고정관념)이 무너져내리는 경이로운 체험을 하게 된다.

자료 중심에서 학제간 연구로 종합적 시각

그동안 구미 여성사에 대한 책들이 출간되긴 했지만, 이 책은 기존의 문헌자료 해석 중심의 역사서술에서 벗어나 학제간 연구방법에 의해 여러 연구성과를 총괄함으로써 19세기 여성의 역사를 종합적·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런 방법론적 시도는 여러 분야의 여성학 연구자뿐 아니라, 한국여성사 연구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며, 19세기 유럽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에 관심 있는 일반 독자에게도 지적 호기심과 흥미를 만족시켜줄 것이다. ◆

새물결/A5신/450면 내외/각 20,000원